

황정음 "버스 맨날 혼자 타고 다녀...아무도 못 알아봐"

등록 2026.06.02 14:27:00



[서울=뉴시스] 황정음. (사진=유튜브 채널 황정음 캡처) 2026.06.02. photo@newsis.com

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배우 황정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상을 공개했다.

황정음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'황정음'에 공개된 영상 '운동(당)하러 가는 날'에서 운동을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.

그는 "저는 버스 타는 거 되게 재밌어 한다. 아기들이 너무 좋아해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닌다"고 말했다.

이어 "버스 맨날 혼자 타고 다닌다. 아무도 못 알아본다"며 "알아봐도 관심 없는 것 같다. 관심 좀 가져달라"고 너스레를 떨었다.

황정음은 과거 인기를 떠올리며 "예전에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나를 보면 난리가 났었다. 너무 예뻐잖아"라고 웃었다.

그러면서 "지금은 그냥 평범하니까 아무도 안 쳐다본다"며 "그래도 예뻐던 시절의 '하이킥' 황정음이 필름으로 남아 있지 않나. 그런 게 너무 감사하다"고 했다.

또 "지금은 그냥 평온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"고 덧붙였다.



[서울=뉴시스] 황정음. (사진=유튜브 채널 황정음 캡처) 2026.06.02. photo@newsis.com

*재판매 및 DB 금지

©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